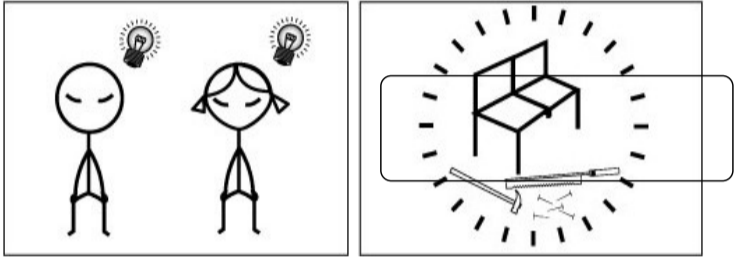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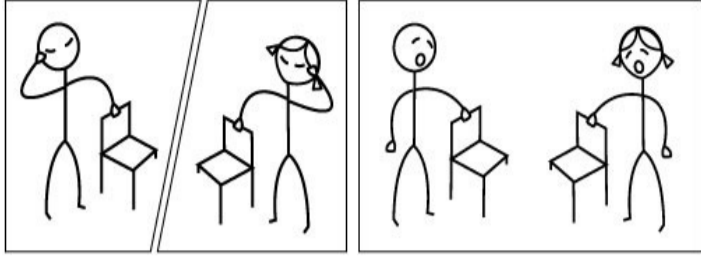


어 영역

2점씩입니다.



언어영역



막힌다.

?

어떻게 글을 마무리할 것인가?

의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언어 영역

다. 대중 매체는 개인, 가정, 학교, 직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화, 정치,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생활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문화 수용의 기회 균등이라는 면에서 큰 발전이다. 그러나 대중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급되는 문화는 현대인의 개성과 취미를 획일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 매체가 과연 사람들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나시키기도 한다.

그는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일제의 착취로 농토를 빼앗기고, 서간도로 갔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비참한 생활 끝에 부모마저 잃게 된다. 여기저기 떠돌며 고생만 하던 그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돈도 벌지 못하고 초라하게 귀국하여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니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았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오?"

"홍,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오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푹푹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우!"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 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이 두어 방울 푹푹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푹푹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언어영역

<p>"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는 분이던가요?"</p>	<p>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 - 현진건, '고향' -</p>
<p>"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p>	
<p>"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p>	
<p>"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아!"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다. 그가 열네 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 먹은 것이었다. <중략></p>	
<p>"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던 머리가 홀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p>	
<p>"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p>	
<p>"눈물도 안 나오더마. 얼른 우동집에 들어가서 돌이서 정종만 따라 마시고 헤어졌구마."</p>	
<p>하고 가슴을 찌는 듯한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p>	
<p>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 묘지로 가고요 -</p>	

어영역

--	--

언어영역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흔 폐혈관(??VIII)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러갔구나!

여승(ㄷ?)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처럼 늪었다

나는 불경(?h)같이 서러워졌다

평안도(??ㄱ)의 어늬 산 깊은 금탑판

나는 파리한 여인(ㄷ?)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ㄷ?)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라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ㄹ)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땡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ㄷ?)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새 나도

그 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어영역

언어영역

: 이거 얼마죠?

: 세 개에 이백 원이에요.

: (돈을 내며) 거스름돈은 그냥 두세요.

: (옥수수를 먹으며) 아이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 나간 지가 오래 됐는데, 소식도 없네요.

: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 세상 떠난 지 오래입니다.(O.L.)

어 영역

국어의 역사는 외래어를 받아들인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중국어로부터 ㉠한자어 흘러들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서만 외래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어에서 들어온 어휘도 적지 않으며 음악 용어는 대부분 이탈리아 어에서 들어왔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온 국어 어휘이다. 그런데 외래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들어온 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고유어여겨지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외국어라는 느낌이 강한 말까지 있다. '납포'나 '담배'가 전자의 예라면, '컴퓨터'나 '인더넷'과 같은 말은 후자에 속한다. 그리고 국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는 중국어에서 들어왔으나 국어로 익었기 때문에 언중의 의식 속에 외래어라는 느낌이 별로 없다.

그래도 ㉢넓은 의미의 외래어에는 한자어도 포함된다. 외래어란 어원적으로 외국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외래어는 언중들의 의식 속에 외국어에서 온 말이라는 느낌이 뚜렷한, 주로 서양의 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말하며, 한자어는 제외된다. 한자어는 들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외국어에서 온 느낌이 별로 없으며 또한 어형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양 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어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다.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표준형인 '텔레비전' 외에 '텔레비전', '텔레비존' 등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가스'를 '개스'라고 쓰는 사람도 있다.

낯선쓰이면서 인용 부호는 빠지게 된다.

실려 있는데 다른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은 예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들어온 말을 두고 그것이 외래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의 지명, 인명은 특히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전문 서적일수록 외국인 이름을 원어의 철자 그대로 쓰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신문이나 아동 도서에서는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쓴다. 외국의 지명, 인명을 원어의 철자대로 쓰면 표기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된다. 'Clinton'을 'Clinton'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음을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에 반해 '클린턴'이라고 적으면 누구나 '클린턴'이라고 발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 지명, 인명도 그것이 본래 외국어임에는 틀림없지만 국어 생활 속에서는 한글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외국의 지명, 인명도 외래어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영역

국어의 어휘

국어의 어휘

국어의 어휘

국어의 어휘

국어의 어휘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L·O·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사·미 □대에 올라서 ?(ㅎ·니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ㅈ롱곳 누르기 □와 잡□·와니 내 엇디 ㅎ·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나)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닥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때면 여달어 볼까 하노라.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털위랑 ㄷ·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리라 우리라 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ㅎ·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ㅅㄴ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영역

복을 두리둥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

내가 이리 진퇴키는 부친 효성 부족함이라. / 치마폭 무릅쓰고 두 눈을 딱 감고 / 뱃머리로 우르르르 손 한
번 헤치드니 / 기러기 낙수격으로 뿔다 물에가 - (소리) 풍

진 한에 파묻히지 말고 그 한을 넘어서는 소리를 혀라.

서편제도 없고 득음의 경지만 있을 뿐이다.

인어영역

인간 복제는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굳이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현대의 난치병인 암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이다.

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14일 이후에는 장기 형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때까지의 인간 배아 연구는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호들갑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번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개체로서의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그 기술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 이것을 허용했을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배아 복제의 연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학 기술의 속성상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일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상업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때, 과학자들이 기업가들의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가들이 장차 이 기술을 장악하게 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초래되는 부작용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은 중대한 사회 문제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과학자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생명 복제 기술과 그 개발 정책에 대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어 영역

한다.

절하지 않은 것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세계 인류가 네오 내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인류의 최고요 최후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해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나,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으로서 하여야 할 최고의 임무는, 첫째로, 남의 절제(???)도 아니 받고 남에게 의뢰도 아니 하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로 []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운 뒤에는, 둘째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상을 낳아, 그것을 먼저 우리 나라에 실현하는 것이다.

①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의,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할 천직(???)이라고 믿는다.

이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이란 결코 삼천 리 삼천만만의 일이 아니라, 진실로 세계의 전체의 운명에 관한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인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것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하는 일이다. 우리

언어영역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 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홍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 하러 가실라요?" "환자(?) 말은 호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이지 누구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 오오."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다 두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 대비(?) 국상시(?)에 백립(?) 갓양이 단단하다 해서 꼬름에 꼬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내 도복 [ㄱ?] 좀 내 오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허허,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홍보가 치장을 채리고 질척(?)을 들어가는데,

[자진모리]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가 들어간다. 홍보 차례를 불작시면, 철대 부러진 현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면자 떨어진 현 망건(◆)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뒷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현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아니리]

홍보가 들어가며 별안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납 박씨(?)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을 할까?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엔 없다.' 질척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 생원 들어오시오?" "호방 뵈 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는지? 하하하!" "박 생원,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말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좌수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어 영역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은 꼽아 논 돈이요, 마샷까지 닷 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 보오." "돈 생길 품이니 가고 말고, ㉠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이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닷 냥을 나를 주게."

[중모리]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궤문을 철경 열고 돈 닷 냥을 내어 주니,
홍보가 받아 들고, "다녀 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오." 박홍보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가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을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 오류(?°F??)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 오류가 끊어지니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한 폰 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를 가서 막걸리 두 폰 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늘어우고 죽통을 빠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서른닷 냥이 들어를 온다. 얼씨구나, 돈 봐라!"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 좇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에 옳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히 앉아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우리 나라만이 갖는 선과 형태의 특성은 부드러움 속에
넉넉함이 담긴 아름다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미가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우리의 독특한 자연
조건과 정서에 있습니다. 정서는 환경과 생활 속에서 늘 보고
듣고 체험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거칠고 척박한
곳에서의 생활은 거칠고 투박한 심성을 만들고, 따라서 파생되는
미의 형태도 투박하게 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환경에서 가꾸어진 여유로운 심성은 부드러운 그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처럼 환경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맹자의

선 어 영역


어머니도 교육을 위해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자연은 노년기 지형으로서 완만한 선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지리산처럼 웅장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설악산처럼 힘있는 선을 나타내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움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강함은 전체적인 부드러움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를 지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미술에서도 부드러운 곡선과 넉넉한 형태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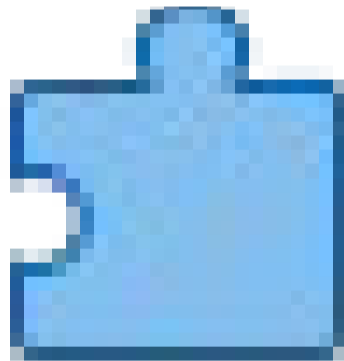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 지붕의 선과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치 주변의 야산을 옮겨다 놓은 듯한 낮은 형태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선과 형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작품에도 그러한 선과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따뜻한 정서가 살아 있는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자기처럼 '대칭과 완벽'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보름달을 닮았다고 하여 '달 향아리'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된 백자는 넉넉한 곡선과 비대칭의 아름다움, 그러면서도 여유있고 균형 잡힌 형태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국의 완벽한 자기(?%)나 기교적인 일본의 자기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한복에서도 나타나고, 풍속화의 선이나 산수화의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힘찬 선과 형태감, 수수하면서도 때로는 파격적인 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선과 형태의 전반적인 특징은 '부드러움'이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형태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 현대 미술에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문화는 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산의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힘있는 곡선과,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 산 따라 골 따라 순응하면서 흘러가는 냇물의 흐름과 뚜렷한 사계절의 흐름을 우리의 그림과 도자기, 생활 문화와 비교해 보면 우리 미의 근원이 자연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영역
